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스가랴 7:1~14)

(For Whom the Fasting Is Done?)

0.1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

- 마태복음 7:20,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0.2 뿌리가 약한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억압'이 될 수 있다.

I. 동문서답

1. 베엘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단을 보내어 '금식'에 대해 질문 했다.
 - 3절,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2. 이스라엘의 공식적 금식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행하는 것이었으나, 바벨론에게 멸망 당한 이후 비극적 역사 사건을 기억하고자 금식 절기를 추가하여 지켰다.
 - 레위기 23:27,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화제를 드려라.” (현대인의 성경)
 - 스가랴 8:19,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
3. 베엘 사람들의 “앞으로 계속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과연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고 물으셨다.
 -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II. 누구를 위해 금식하는가?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나 하시니라”
2. 하나님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금식이나 종교의식을 행한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 참된 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
 - 9~10절, “9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 이사야 58:6~7,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꿀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III. 참된 금식은 생활 예배에서의 순종이다

1. 하나님이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했다.
 - 11~12절, “¹¹ 그들이 ① 듣기를 싫어하여 ②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③ 귀를 막으며¹² ④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2.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약자를 돌보는 사명을 선포하셨다.
 - 누가복음 4:18~19, “¹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¹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3.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셨다.
 -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흠뻑이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IV. 겹데기냐 실체냐 (가짜 예배 vs. 참 예배)

1. 스가랴 7장의 신약적 재해석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이다.
 - 누가복음 18:11~12, “¹¹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¹²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 누가복음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 누가복음 18: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
2. '좋은 전통'은 죽은 자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잘못된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은 믿음'을 갖게 한다.

[결론]

1.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하며, 공적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생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 하박국 2: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2. 주중에 '가인'처럼 살면서, 주일에 '아벨'처럼 예배드릴 수는 없다.
 - 주일 공적 예배 수준이 주중 생활 예배 수준을 결정하고, 주중 생활 예배 수준이 주일 공적 예배 수준을 결정한다.